

35년전 출판계에는 대 변혁이 일어났다. .

매킨토시 컴퓨터에 DTP 전자 출판 이라는 기술이 보급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 으로 출판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. 출판 밀집지역 총무로 일대에서는 약 3,000 여 제판 전문 업소가 문을 닫고 동시에 수천개의 출판 업소가 생겨 났다.

각종 디자인 기획사, 신문사 무가지, 잡지사 참고서 제작사 등등이 새로이 생겨 났다.

약 35년 이 지난 오늘 까지도 그당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출판물을 제작 하고 있다. 그러나 그동안 출판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. 인터넷 모바일 등등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종이 위주의 미디어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다;

특히 35년 된 제작 방식으로 새로운 매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.

가장 커다란 병목은 전문가들만이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

점 이다.

즉 편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와 이를 사용해서 출판물을 제작 하는 두개의 집단만이 출판물을 제작 할 수 있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인쇄물을 제작 할 수 밖에 없다. 과거에는 출판물만이 유일한 매체 이기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양 매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점점 일반인 들로 부터 가격저인 면에서 소외 되어 가고 있다.